

요되며 술자의 경험 및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이를 사용함에 번거로움이 있다. 본 교실에서는 .017x .025TMA wire에 gradual curve를 부여하고 약간 고무줄을 사용하여 개방교합을 치료하였다. TMA wire는 Ormco 회사가 1980년에 처음 개발한 것으로 탄성계수가 stainless steel보다 작아 stainless steel에 비해 작은 교정력을 발휘하게 되어 구강외 저항원의 요구가 훨씬 줄게 된다. 또한 stainless steel wire에 비해 elastic range와 resiliency가 커 accentuated curve 또는 reverse curve of Spee형성시 stainless steel wire에 비해 훨씬 장기간 유지가 가능하다. 본 증례는 전치부 개방교합을 주소로 내원한 19세 여자환자로 상악에는 accentuated curve를 하악에는 reverse curve of Spee를 부여한 TMA wire를 사용하고 전치부에는 약간 수직 고무줄 걸어 개방교합을 효과적으로 치료하였기에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T-11
TABLE
CLINIC

비외과적 방법을 이용한 안면 비대칭환자의 치험례

송세은 · 윤영주 · 김광원
조선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최근 심미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많은 정보를 쉽게 접하면서 치열의 심미성뿐 아니라 안모의 비대칭을 주소로 하여 내원하는 환자의 수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안면 비대칭은 크게 골격성과 치성, 그리고 혼합된 양상으로 나타나는데, 골격성인 경우 성장중인 아동이라면 악기능 장치를 이용하여 악골의 횡적·수직적 부조화를 고려하여 악정형 치료를 시도할 만하고, 성장이 완료되거나, 비대칭의 정도가 매우 심한 경우에는 orthognathic surgery를 동반한 교정치료가 필요하다. 치성인 경우는 편측 elastic을 이용하거나 편측발치를 통한 치료가 가능하다. 본 증례에서도 안면 비대칭의 정도가 골격적으로 심하지 않아 편측 발거를 통해 비외과적으로 치료하였는데 우수한 환자의 협조도에 의해 좋은 결과를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는 TMJ problem을 주소로 내원한 22세의 남자 환자로, straight profile과 하악골의 우측 편위로 인한 비대칭적 안모를 보였다. 구강내 소견으로는 #33,42,43의 반대교합과 #12,22가 설측경사되고 왜소치였으며, #15,25,45가 결손이었다. 한편, 개구시에 정중선이 올바른 방향으로 향하고, prematurity가 존재하며, 결손된 방향으로 정중선이 편위된 것으로 미루어 치성과 기능이 혼합된 경우로 판단되어 #12,22의 공간 확보를 위해 상악에는 pan-type expansion screw를 이용하고 prematurity 개선을 위해 posterior bite block을 사용하였고, 하악은 #34를 발거하여 정중선의 편위를 개선하였다. 좌측에는 지속적으로 asymmetric CIII elastic을 사용하였다. 치료 후의 안면 비대칭은 만족할만한 개선을 보였으며, 적절한 overjet과 overbite를 획득하고 양호한 교합관계를 얻을 수 있었다.

T-12
TABLE
CLINIC

Surgically-assisted orthodontics

김재수 · 김현숙 · 이형돈 · 정혜승 · 태기출 · 김상철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피질골 절단술과 견인골 신장술 같은 수술을 보조적으로 이용한 교정치료는 기존 술식들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최근 교정치료의 흐름으로 각광받고 있다. 피질골 절단술은 치아 이동에 장애가 되는 치밀골의 연속성을 차단하여 치아를 포함하는 골편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여 신속한 치아 이동을 도모하는 술식으로, 구치부 합입, 구치의 원심이동, 급속 구개확장, 상악 육전치 견인, 유착치의 재위치 등에 손쉽게 이용 될 수 있다. 한편 견인골 신장술은 점진적인 견인에 의해 점차 분리된 골편들 사이에 새로운 골이 형성되는 생물학적 과정으로 상·하악골의 선천적, 후천적 기형, 치조골의 수직적 견인, 상·하악골의 횡적 확장 등에 이용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피질골 절단술 및 견인골 신장술을 이용한 교정치료시의 고려사항 및 장·단점 등을 고찰해보고 이를 이용한 여러 임상증례를 소개하고자 한다.